

《자유연제 III 12:40 ~ 13:30》

**접촉성 운동선수의 다방성 불안정 견관절의 하관절낭 이동술  
- THE INFERIOR CAPSULAR SHIFT PROCEDURE FOR MULTIDIRECTIONAL  
INSTABILITY OF THE SHOULDER IN CONTACT ATHLETES -**

김영규 · 백승정  
가천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정형외과

**서 론**

견관절 다방성 불안정증은 두방향 이상에서 불안정을 보이는 비외상군으로 외상에 의한 전방 혹은 후방의 한 방향에 대한 불안정 견관절과 감별하여 치료되어야 한다. 다방성 불안정 견관절은 회전근개 및 견갑회전근들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재활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통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저자들은 견관절의 일차적 안정화 요소인 적절한 근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방성 불안정 견관절을 보인 접촉성 운동선수 11례에 대해 하관절낭 이동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추시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7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다방성 불안정 견관절로 진단된 접촉성 운동 선수중 하관절낭 이동술을 시행한 11명, 11례의 견관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24세(19-46)였으며 전례에서 남자였다. 우측 8례(73%) 좌측 3례(27%)였으며, dominant가 9례(82%) non-dominant가 2례(18%)였다. 대상환자중 7명은 축구선수, 3명은 격투기선수, 1명은 아이스하키 선수였으며, 추시기간은 평균 14.5개월 (12~24)이었다. 과거력상 8례(73%)에서 경도 및 중등도의 외상 병력이 있었고, 3례(27%)에서 평균 4회(2-7)의 견관절 탈구 병력과 11례 전례에서 아탈구의 병력이 있었다. 술전 증상 발현시기는 평균 4.4년(1.5-15)이었고, 전례에서 동통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였으며, 3례(27%)에서 탄발음을 호소하였다. 이학적 소견상 전례에서 2도 이상의 하방전위를 보였으며, 10례(91%)에서 2도 이상의 전방전위가 있었고, 4례(36%)에서 전방인지점사에서 양성을 보였으며, 4례(36%)에서 타관절의 과신전을 보였다. 관절경 소견은 전례에서 중,하 관절와상완인대 및 전방 관절와순의 발달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완된 액와낭을 보였으며, 동반된 병변으로는 전방 관절와순 파열 2례, SLAP병변 2례, Hill-Sachs 병변 3례, 하관절와 결절종이 1례 있었다. 술후 견관절 기능의 평가는 견관절의 동통, 안정성, 기능등을 기준으로 한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ASES) 평가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각 평가기준에 따라 동통에 36점, 안정성에 36점, 기능에 28점을 부여하였고, 90점 이상을 우수, 75점에서 89점을 양호, 60점에서 74점까지를 보통, 59점이하를 불량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ASES 평가에 의한 술후결과는 술전 통증 점수가 2.4에서 4.2로, 안정성은 술전 2.3에서 4.0으로, 기능은 술전 2.3에서 3.7로, 평균 술전 7.0에서 술후 12.6점으로 향상되어 평균 5.6점의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ASES 평가 방법에 따른 점수는 동통이 술전 17.0에서 술후 30.1로, 안정성은 술전 16.4에서 28.8로, 기능은 술전 15.9에서 26.1로 증가되었으며, 총점수는 술전 49.3점에서 85점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수군이 4례(36%), 양호군이 5례(45%), 보통군이 2례(18%)로 82%에서 양호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합병증으로는 봉합사에 대한 염증성 육아종이 1례, 아탈구의 재발이 1례, 관절 강직이 1례 있었다.

**결 론**

본 저자들은 다방성 불안정 견관절을 가진 접촉성 운동선수의 경우 충분한 근력강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하여 운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11례의 견관절을 대상으로 하관절낭 이동술을 시행한 후 평균 14.5개월 추시결과 재발성 아탈구 1례와 관절강직 1례를 제외하고 9례(82%)에서 양호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관절낭 하방 이완을 줄이는 하관절낭 이동술은 접촉성 운동선수에게 동통의 감소 및 안정성과 운동생활의 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충분한 원격추시가 요구된다.